

A Study on Development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vention Program

Jinhee Hyun⁺, Hyang A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201 Daegu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be adopted at an organizational level, preven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of practitioners who are continuously exposed to client's trauma. During the process of the program development, the intervention research model was employed. Both need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performed to counselors in child protection agencies, which confirmed the level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experienced by counselors, impact on their work and personal life, and the status of the trauma-related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an organizational level. The required contents and operational methods of the programs were also identified. A pilot study performed on 7 counselors found that the program reduced the level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and improved the stress-coping style of the counselors. Based on the results, a preventative program was finally developed at an organizational level for practitioners working with trauma-exposed clients.

Key words: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vention program, intervention research model, program development

1. 서론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재난 생존자 등 다양한 트라우마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주요 대상으로 원조하는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와 서로 공감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으며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계에 다가가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상실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외상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외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이차외상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라고 한다(Park, 2008; Figley, 2002; Galek, *et al.*, 2011). 이차외상스트레스는 공감 피로(Compassion Fatigue)와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이차외상스트레스는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지하철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성폭력 상담원 등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제시되어 왔다(Park, 2008; Park & Yoon, 2011; Jung, 2011; Rhee, *et al.*, 2012; Kim & Kim, 2013; Han & Lee, 2013; Kim, *et al.*, 2017; Hyun, 2017).

트라우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외상

⁺ Corresponding author: Jinhee Hyun, Tel. +82-53-850-6312, Fax. +82-53-850-6319, e-mail. jhh@daegu.ac.kr

사건을 경험한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갈이나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Figley, 2002; Park, 2008). 전문가가 이차외상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차외상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발생시키거나, 업무 부담과 소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Park & Yoon, 2011; Yoon, 2013). 또한 이차외상스트레스는 전문가의 직무 효율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Maslach, *et. al.*, 2001), 직무 만족과 이직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Koniarek & Dudek, 2001),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eo, *et. al.*, 2006).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한 전문가들이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xander & Klein, 2001).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슬픔, 우울, 불안, 불안 등을 겪게 되며(Cerney, 1995),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적 탈진이 높을수록, 업무과중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8). 그렇지만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노출된 후 그 경험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시행할 경우, 이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디브리핑(debriefing)은 위기 사건으로 인하여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며, 자신이 느낀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디브리핑을 통해서 대처 행동을 익힐 수 있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Hagman, 2014). 미국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에서 시행한 조사(2008)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및 위기 디브리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더욱 집중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CS-NYU

Children's Trauma Institute, 2012).

한편 이차외상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우울 수준은 전문가가 어떤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yun, 2017).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개인적 삶과 여가, 업무환경에서의 유머와 사회적 지지와 중요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인 것으로 밝혀졌으며(Gold, 1998),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보다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Yu & Park, 2009). 또한 마음챙김(mindfulness)과 같은 전략은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함이 확인되었으며(Jeon, *et. al.*, 2007), 마음챙김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잘 알아차리게 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 1995). 마음챙김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자원으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수반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상태'를 말하며(Kabat-Zinn, 1990),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사용하는 정서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고, 주의 집중이나 현재 자각에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행동에 유용한 심리적 기제이다(Brown & Ryan, 2003).

이상과 같은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전략들은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야기된다(Um & Jang, 2014). 트라우마를 경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촉이 높은 전문가들은 그들의 업무 특성상 이차외상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차외상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전문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안을 미리 훈련받을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회복과정에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이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McCann & Pearlman, 1990),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레질리언스는 역경과 외상을 경험할 때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Reivich & Shatte, 200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레질리언스는 외상 스트레스나 직무 스트레스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건강 문제, 행동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Agaibi & Wilson, 2005). 또한 레질리언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bfoll, *et. al.*, 2011), 외상 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Park, 2011).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만의 노력으로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yun, 2017). 특히 업무상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주로 노출되는 전문직의 경우 조직적 차원에서 직원들의 트라우마에 민감한 실천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정규화된 교육 또는 집단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직적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국내에서는 아직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관련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 중 대표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전문가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문가의 개인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Thomas & Rothman(1994)에 의해 개발된 개입조사모형(Intervention Research)을 토대로 업무의 특성상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를 주로 다루어야 하는 전문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입조사모형은 1970년대 초부터 연구되어 온 공학적인 개념과 조사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모델이자 조사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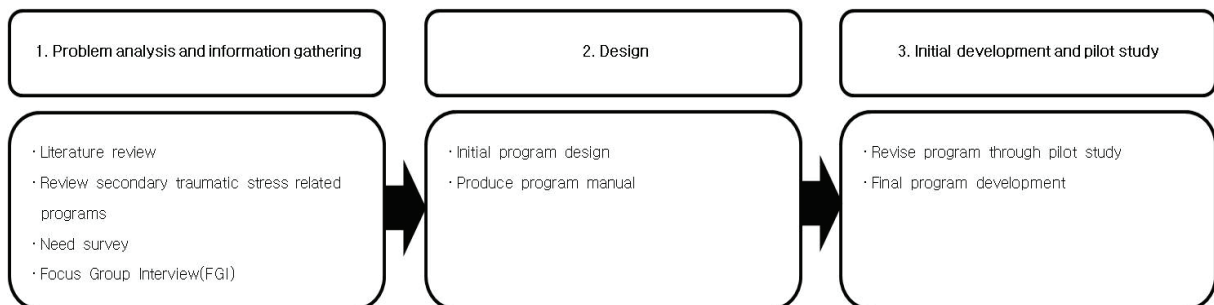


Figure 1. Program development process by Intervention Research model

(Seo, 2004). 이 모델은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적용시키며 정보수집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한 조사와 분석방법을 강조한다 (Seo & Kong, 2008). 개입조사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가 업무상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실태 및 욕구와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입조사모델의 단계 중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1) 문제분석 및 정보수집 단계

전문가들이 업무상 경험하게 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의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외에서 증명된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Mitchell 박사에 의해 개발된 중요한 사건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 중에서 스트레스사건 보고(debriefing)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전문가의 심리적 위기 개입의 방법으로 유용하다. 최근 트라우마에 특정한 개입 방법(Trauma Specific Intervention)으로 알려진 증거기반실천방법들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Psychotherapy), 인지과정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 안구운동소실치료(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스트레스관리훈련(Stress Inoculation Training: SIT), 자조집단참여(Self-Help Group), 마음챙김 명상훈련(Mindfulness in Treating Trauma Reaction) 등의 실천방법들이 있다 (SAMHSA, 2014). 이러한 증거기반실천방법들 중 전문가를 위한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예방에 적절한 수준인 마음챙김 명상훈련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에 대한 위기개입 방안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사건 보고(debriefing)를 집단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원인, 증상, 위험신호, 조직적 차원에서의 완화전략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관리전략 등을 집단프로그램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입 방안들을 한국 실천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트라우마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주 대상으로 근무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받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구성내용 및 프로그램 기법, 바람직한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디자인 단계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와 조사 결과들을 분석하여 4회기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도출하였다. 초기 프로그램의 구조, 활용될 기법과 도구, 각 회기별 내용과 배치, 운영방법 등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도구들을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3) 초기개발 및 초기현장실험 단계

구성된 초기 프로그램의 매뉴얼과 회기별 사용될 자료들을 제작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모집하여 개발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현장에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실험집단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초기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조사 도구

욕구조사와 초기현장실험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외상스트레스 척도

Stamm(2005)이 개발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ProQOL: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중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문항을 활용하여 상담원들이 업무상 경험했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이차외상스트레

스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www.proqol.org에 게시되어 있는 본 척도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차외상스트레스 점수의 합이 22점 이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이고, 23점에서 41점까지는 평균 수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의미하며, 42점 이상은 높은 수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Stamm, 200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5$ 로 나타났다.

2) 우울 척도

우울은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상인의 우울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Radloff(1977)의 CES-D를 Chon & Rhee(1992)가 한국판으로 수정 개발한 것이다. 4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5$ 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 & Lazarus(1985)가 개발하여 Park & Lee(1992)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추구, 문제 회피, 소망적 사고와 같은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39문항이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1$ 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 및 분석 방법

육구조사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상담원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간 실시하였다. 전국 기관의 상담원들이 모인 집합교육이 이루어질 때마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상담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미응답 항목이 있는 응답자들을 제외하여 총 164명의 육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육구조사의 내용은 상담원들이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수준, 이차외상스트레스가 업무와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혹은 기관에서의 극복방법, 원하는 해결방법, 기관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의 현황 등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하여 포커스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집단면접의 대상자 선정 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근무 년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담원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전국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팀장 및 실무자들을 추천받은 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총 16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약 2-3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포커스 집단면접은 연구진이 준비한 질문들에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 및 경험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수준을 경감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과 같은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포커스 집단면접의 결과는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진술문들을 유사한 의미 단위들로 분류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그 하위범주를 다시 더 높은 차원의 범주로 묶어 상위범주로 명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상 문헌조사, 육구조사와 포커스 집단면접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4회기의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의 집단프로그램을 2016년 9월 동안 4회기 제공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상담원들의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의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Variables	Category	Frequency(N)	Percent(%)
Sex	Male	67	40.9
	Female	97	59.1
Age	20's	106	64.6
	30's	51	31.1
	40's	7	4.3
Education	College	2	1.2
	Under graduate	153	93.3
	Graduate	9	5.5
Work experience	1-2y	107	65.2
	3-4y	29	17.7
	5-10y	28	17.1
Monthly case load	0-19 cases	53	32.3
	20-39 cases	73	44.5
	40-150 cases	38	23.2
Total		164	100

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자료를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제분석 및 정보수집

1) 프로그램 욕구조사

트라우마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주 대상으로 근무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욕구조사 대상자의 164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상담원들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험한 아

동학대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학대 사건의 유형과 이 학대 사건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 본 경험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받은 지원과 상담, 정기적인 슈퍼비전 및 교육 경험 등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는 다음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업무상 다루어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학대 사건은 상담원들에게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상담원들은 아동 성학대 사건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하였으며, 신체학대와 중복학대 사건을 그 다음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이 상담원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약 93.3%의 상담원이 직업에 방해받았음

Table 2. Types of traumatic child abuse cases

N=164

Typ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Multiple abuse	Total
Frequency(N)	39	5	64	21	35	164
Percent(%)	23.8	3.0	39.0	12.8	21.3	100

Table 3. The extent to be interfered counselor's daily life by child abuse case

N=164

Subject area	Job	Social life / Leisure activity	Family life / Roles at home
Not at all	11 (6.7%)	17 (10.4%)	16 (9.8%)
Slightly	34 (20.7%)	32 (19.5%)	35 (21.3%)
A little	58 (35.4%)	48 (29.3%)	51 (31.1%)
Severe	57 (34.8%)	63 (38.4%)	59 (36.0%)
Very severe	4 (2.4%)	4 (2.4%)	2 (1.2%)
Total	164 (100%)	164 (100%)	164 (100%)

Table 4. Level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N=164

	Mean	SD	Minimum	Maximum
Secondary traumatic stress	27.76	6.11	12	42

을 보고하였고, 약 90.2%가 가족생활, 약 89.6%가 사회생활에 방해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원들이 업무상 다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부터 받은 충격 즉 이차외상스트레스는 상담원의 직업, 가족, 사회생활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구조사에 참여한 164명의 상담원의 이차외상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7.76점으로 대부분 중간수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뒤 12.2%의 상담원만이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평상시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상담원은 71.3%였으나, 트

라우마 관련 교육을 받은 상담원은 13.4%뿐이었다. 상담원들이 업무에서 다루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에 비하여 평상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받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 포커스 집단면접(FGI)

포커스 집단면접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5. Support by agency after experiencing traumatic abuse case, usual supervision and trauma related education

N=164

	Support by agency after traumatic abuse case	Counseling after traumatic abuse case	Regular supervision	Trauma related education
Yes	20 (12.2%)	2 (1.2%)	117 (71.3%)	22 (13.4%)
No	144 (87.8%)	162 (98.8%)	47 (28.7%)	142 (86.6%)
Total	164 (100%)	164 (100%)	164 (100%)	164 (100%)

Table 6.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Sex	Age	Status	Major and degree	Working period
1	Male	26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1y 10m
2	Female	26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1y 4m
3	Male	42	Director	Social Work, Master	9y
4	Female	29	Senior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4y 2m
5	Male	30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4y 2m
6	Female	35	Team leader	Social Work, Bachelor	4y
7	Male	34	Team leader	Social Work, Bachelor	6y 5m
8	Male	30	Team leader	Social Work, Master	6y 5m
9	Male	41	Team leader	Psychology, Social Work	5y 8m
10	Male	30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5y 8m
11	Male	36	Team leader	Social Work, Bachelor	7y 1m
12	Male	29	Team leader	Social Work, Bachelor	3y 6m
13	Male	38	Team leader	Social Work, Bachelor	6y 5m
14	Female	28	Senior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4y 1m
15	Female	28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3y 7m
16	Male	29	Counselor	Social Work, Bachelor	1y 9m

Table 7. Impact of client's trauma on the counselor

Subject	High-level category	Low-level category
Impact on personal life	Counter-transference	Recall myself and my family through client
	Secondary traumatic stress experience	Idea lingers in one's mind
		Suffer from nightmare, and experience difficulty of sleep
		Become absent-minded
		Avoid specific location, person, and etc.
		Have difficulty in separating oneself from work
	Psychological pain	Anxiety
		Fright
		Helplessness
		Fear against the abuser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victim
	Cognitive change	Become insensitive to death
		Develop negative perception on marriage
		Change in values
	Daily life changes	Avoid personal relationship
		Do not have any schedule over the weekends
Impact on professional life	Influence from the abuser	Feeling guilty just because I am male
		Works limited due to the gender of the counselor
	Negative feeling from the work	Sympathy and concern for other counselors
		Resentment against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Feeling apologetic towards colleagues
		Intended emotional elimination towards client
		Feeling guilty for the child victims
	Feeling of burden of the work	Burden of separating child
		Burden of suggesting the solution

포커스 집단면접을 통하여 제시된 클라이언트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음 <Table 7>과 같이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8개의 상위 범주와 25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클라이언트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노력들

은 다음 <Table 8>과 같이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7개의 상위범주와 23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는 다음 <Table 9>와 같이 2개의 주제 하에 4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Table 8. Efforts to overcome difficulty caused by traumatic experience of client

Subject	High-level category	Low-level category
Organization level	Efforts of the organization to change	Chang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ase
		Reduce educational promotion projects
		Change office space
	Various supports by the organization	Provide vacation
		Launch healing programs
		Provide cultural activity allowance
		Provide break time during the day
		Refer to psychotherapy
	Support from colleagues	Case discussion with colleagues
		Various considerations by colleagues
		Sharing hobby with colleagues
	Organization doesn't do any help	Feeling like nothing an organization can do
		Feeling problem lays in the fundamental structure
		Receive emergency call even during vacation
		Too long meeting and case sharing seminar
Not expressing difficulty due to my pride		
Individual level	Difficult to manage personal time	Reduce alone time as much as possible
		Keep think of the case even at home
	Having healthy hobby	Work-out
		Watch movie
		Find an activity to focus on
	Avoiding work	Go out-of-office duty to avoid counseling call
		Try not to be emotionally involved in the case, as much as possible

Table 9. Contents and format of programs preven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Subject	High level category	Low level category
Form program group	Homogeneity of the group members	All of the members of an organiz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Prior intervention for the group of staff with high risk
		Group of staff who can have sincere discussion
		Group of staff with similar length of experience
		Staff from same organization need to have time to resolve any old score
		Priority should be on the new joiners
		Program tailored for different length of experience
	Difference among the group members	Difficulty to share honest stories in front of one's boss from the same organization
		Forming group with staff from other organizations
Program operation	Program contents	Useful format such as group counseling, psychodrama, and roll-play
		Training program
		Debriefing helps
		Need to express emotions
		Need to express experience
	Program schedule	One-day or off-site multiple days training may be better
		Difficulty to participate in all of the program sessions if offered once every week
		Moderator to visit the organization for training
		Weekly program scheduling help problem solving

2. 프로그램 디자인

문헌조사, 욕구조사와 포커스 집단면접의 결과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되었다. 첫째, 상담원들은 대부분이 중간수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차외상스트레스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상담원들이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는 그들의 업무, 일상생활, 가족생활 등 전반적이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도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평상시에 이러한 이차외상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정기적인 슈퍼비전이나 트라우마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상과 같이 확인된 현황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 <Table 10>과 같이 총 4회기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1회기의 주제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인식하기’로서 전문가들이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정의와 원인, 증상,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적 방법과 집단역동을 활용한 집단토의를 활용하여 다루었다. 또한 이차외상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 각각 자신의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점수를 근거로 자신의 업무와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기개방과 자기인식의 시간을 가졌다.

2회기의 주제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하기’로서 업무상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직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개입 방안으로 디브리핑(debriefing)을 활용한 ‘중요한 사건 스트레스 보고(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교육 후 상담원들이 실제 경험한 최근의 사건경험에 대하여 집단 디브리핑하는 연습을 하여 그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3회기의 주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 연습하기’로서 스트레스관리 방안 중 트라우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마음챙김 명상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교육하고 실제 실습을 통하여 전문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회기의 주제는 ‘레질리언스 강화하기’로서 이러한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방안과 레질리언스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관이 트라우마가 중심이 되는 민감성 있는 조직이 될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트라우마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관리의 5가지 주요 영역인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전문적 자기관리 평가지(Saakvitne, *et al.*, 1996)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기관리 상황을 공유하

Table 10.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vention program: Resiliency training program

Sessions	Main Contents
Session 1: Recogniz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1. Introduce myself / Introduce program goals and content 2. Trauma and stress 3. Reasons to deal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the child protection field 4. Recogniz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5. Causes, symptoms, warning signs, coping methods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6. Common counter-transference reaction when counseling a trauma survivor
Session 2: Preven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1.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 2.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 3. Practice debriefing on traumatic child abuse cases
Session 3: Practicing stress coping strategies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Session 4: Strengthening resiliency	1. Trauma stewardship: Trauma management 2. Organizational strategy to reduce secondary traumatic stress 3. Self care plan 4. Improving resiliency in trauma-informed care system 5. Vicarious resilience 6. Program evaluation / Wrap-up

고 집단토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자기관리계획을 도출 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들이 반영되어 개발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인 ‘레질리언스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회기별 구성은 다음 <Table 10>과 같다.

3. 프로그램 초기개발과 현장실험

상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경력 이 최소 1년 이상 되었고, 주요 업무가 아동학대 사건 조사나 상담 및 사례관리로 업무 상 충격적인 학대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상담원으로 4회기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가 가능한 경우로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정신건강전문가이며 개발자인 본 연구자가 대부분의 회기를 진행하였고, 마음챙김 명상을 전문적으로 수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요소와 함께 집단의 역동을 충분히 활용한 집단상담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상담원 7명의 일반적 특성과 프로그램 효과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차외상스트레스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이차외상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는 다음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12>에서와 같이, 사후조사에서 이차외상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28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조사에서의 이차외상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사후조사의 평균 점수는 낮은 수준의 이차외상스트레스 점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중 6명의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1명의 평균 점수는 다소 증가하였다.

2) 우울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우울 수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3>에서와 같이, 우울의 평균 점수는 사후조사에서 8.85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모두의 평균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pilot stud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N)	Percent(%)
Sex	Male	2	28.6
	Female	5	71.4
Age	20's	4	57.1
	30's	3	42.9
Education	Under graduate	7	100
Working experience	Less than 2y	2	28.6
	2y-5y	4	57.1
	More than 10y	1	14.3
Total		7	100

Table 12. Secondary traumatic stress

	Category	M	Rank			Z	P
			Rank	N	Mean Rank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test	23.28	Negative	6	4.42	-2.117	.034
	Post-test	19.00	Positive	1	1.50		
			Equal	0	-		

* Negative ranks: Pre-test>Post-test, Positive ranks: Pre-test<Post-test, Equal: Pre-test=Post-test

Table 13. Depression

	Category	M	Rank			Z	P
			Rank	N	Mean Rank		
Depression	Pre-test	37.42	Negative	7	4.00	-2.384	.017
	Post-test	28.57	Positive	0	0		
			Equal	0	-		

* Negative ranks: Pre-test>Post-test, Positive ranks: Pre-test<Post-test, Equal: Pre-test=Post-test

Table 14. Stress Coping Style

	Category	M	Rank			Z	P
			Rank	N	Mean Rank		
Stress coping style	Pre-test	93.14	Negative	1	1.00	-2.197	.028
	Post-test	100.85	Positive	6	4.50		
			Equal	-	-		

* Negative ranks: Pre-test>Post-test, Positive ranks: Pre-test<Post-test, Equal: Pre-test=Post-test

3) 스트레스 대처방식

프로그램 후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변화는 다음 <Table 1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14>에서와 같이, 사후조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평균 점수는 7.71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6명의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1명의 평균 점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중 6명이 프로그램 참여 후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상담원들은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참여 후에 이차외상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대사건의 신고와 현장출동 등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회기 정도의 프로그램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디브리핑이 유용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후 현장에 보급될 프로그램은 기관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따라 운영시간과 횟수, 운영방식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충격적인 학대 사건

을 경험한 후 슈퍼바이저 또는 동료들과 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디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이후 이차외상스트레스 증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전문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입조사모델이 활용되었으며, 업무상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와 포커스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상담원들이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수준, 이차외상스트레스가 업무와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 기관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의 현황,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첫째, 이차외상스트레스 인식하기, 둘째,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하기, 셋째, 스트레스 대처전략 연습하기, 넷째, 레질리언스

강화하기의 4회기로 구성하여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프로그램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명을 대상으로 초기 현장실험을 실시한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이 상담원들의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 수준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차 트라우마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주된 대상으로 실천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이차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은 장차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반응들을 정상화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둘째, 트라우마에 노출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에 노출된 현장에서 유용한 전문가의 자기관리와 조직의 관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천과정에서 빈번하게 이차외상을 경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다양한 실천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6670).

References

- ACS-NYU Children's Trauma Institute. 2012. *Address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Child Welfare Staff: A Practice Brief*. New York: NYC Langone Medical Center.
- Agaibi, C. and J. Wilson. 2005. Trauma, PTSD, and Resili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6(3): 195-216.
- Alexander, D. A. and S. Klein. 2001. Ambulance Personnel and Critical Incidents: Impact of Accident and Emergency Work on Mental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8: 76-81.
- Brown, K. W. and R. M. Ryan.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822-848.
- Cerney, M. 1995. *Treating the Heroic Theaterers in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edited by Figley, C., New York: Routledge. 131-149.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8. www.cwla.org.
- Chon, Kyum Koo and Min Kyu Rhee.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Figley, C. R. 2002. Compassion Fatigue: Psychotherapists' Chronic Lack of the Self Care. *Psychotherapy in Practice*. 58(11): 1433-1441.
- Folkman, S. and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70.
- Galek, K., K. J. Flannelly, P. B. Greene, and T. Kudler. 2011. Burnout,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ocial Support. *Pastoral Psychology*. 60: 633-649.
- Gold, N. 1998. Using Participatory Research to Help Promote the Physical Mental Health of Female Social Workers in Child Welfare. *Child Welfare*. 77(6): 701-724.
- Hagman, G. 2014. Helping Newtown: Reopening a School in the aftermath of Tragedy.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5(177): 1-8.

- Han, Jeong Won and Byoung Sook Lee. 2013. The Relationship of Post-traumatic Stres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40-350.
- Heo, Su Yeon, Jeong Eun Lee, Jong Eun Lee, Hye Young Hong, Ho Sun Yoo, Eun Hee Choi, and Byoung Soo Yum. 2006.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ailroad Drivers Who Experienced Railroad Accidents: Focused on PTSD and Social Support of Co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5: 99-120.
- Hobfoll, S., A. Mancini, B. Hall, D. Canetti, and G. Bonanno. 2011. The Limits of Resilience: Distress Following Chronic Political Violence among Palestin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72(8): 1400-1408.
- Hyun, Jinhee. 2017. The Effect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on Depression among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and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Mental Health & Social Work*. 45(1): 229-254.
- Jeon, Jong Hee, Woo Kyeong Lee, Soo Jung Lee, and Won Hye Lee. 2007. A Pilot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1): 201-212.
- Jung, Yeo Joo.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Trauma among Self-efficacy and Client Violence of Workers in the Field of Counseling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Ph. 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abat-Zinn, J. 1990.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ta.
- Kim, Ja Hye and Jung Kyu Kim. 2013. The Relation of a Typ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Korean Police Studies*. 12(3): 27-50.
- Kim, Ji Eun, Hye Yeon Kim, Hye Won Kim, and In Han Song. 2017.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Practitioners Supporting Sexual Assault Victim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4): 491-509.
- Koniarek, J. and B. Dudek. 200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Fire fighters' Attitude to their Job. *Medycyna Pracy*. 52(3): 177-183.
- Maslach, C., W. B. Schaufeli, and M. P. Leiter.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McCann, L. and L. A. Pearlman.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7.
- Park, Ae Sun and Young Hee Lee. 1992. Influence of the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Stress Perception of Married Women on the Coping Style for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1): 69-80.
- Park, Ji Young. 2008.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Work-Related Stress and Relevant Factors in Working with Traumatized Childr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177-206.
- Park, Yun Mi and Hye Mee Yoon. 2011.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6: 289-322.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ivich, K. and A. Shatte.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Rhee, Young Sun, So Rae Lee, Sung A Joo, Young Bin Ko, Ye Jin Kim, and In Young Han. 2012. Vicarious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in Emergency Workers, Subway Operators, and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249-273.
- Saakvitne, K. W., L. A. Pearlman, and D. J. Abrahamson. 1996. *Transforming the Pain: A Workbook on Vicarious Traumatization*. New York: WW Norton.
- SAMHSA(Substance Abuse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4. *Trauma-Informed Care in Behavioral Health Servic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eo, In Hae and Gye Soon Kong. 2008. A Content Analysis on

- the Program Design Activities in the Proposals for Social Work Progra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103-125.
- Seo, In Hae. 2004. Collaborate a New Paradigm for Developing Social Work Program in Korea: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Intervention Research(IR).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6(2): 1-26.
- So, Hyang Sook. 1995. The Uncertainty, Coping and Depression of Cervical Cancer Patient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Stamm, B. H. 2005.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and Compassion Fatigue/secondary Trauma Scales*. Latherville, MD: Sidran Press.
- Stamm, B. H. 2009.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Version 5(ProQOL). Retrieved from www.proqol.org.
- Thomas, E. J. and J. Rothman. 1994.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Intervention Research*. Intervention Research: Design and Development for Human Service. 3-24.
- Um, Young Sook and Soo Mi Jang. 2014. The Process of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of Child Welfare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3): 63-90.
- Yoon, Myeong Sook and Eun A Park. 2011. Posttraumatic Growth among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9: 61-89.
- Yoon, Myeong Sook. 201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1(4): 174-200.
- Yu, Ji Hyoun and Kee Hwan Park. 2009.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PTSD Symptoms in Fire-Fighters: Focusing on Depression, Anxiety,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3): 833-85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자혜, 김정규. 2013.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 12(3): 27-50.
- 김지은, 김혜연, 김혜원, 송인한.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491-509.
- 박애선, 이영희. 1992.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69-80.
- 박윤미, 윤혜미. 2011.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289-322.
- 박지영.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외상관련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177-206.
- 서인혜, 공계순. 2008.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에 나타난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103-125.
- 서인혜. 2004.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입조사(Intervention Research)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2): 1-26.
- 소향숙. 1995.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대처방식 및 우울의 변화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영숙, 장수미.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이차 외상스트레스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63-90.
- 유지현, 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우울, 불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3): 833-852.
- 윤명숙, 박은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61-89.
- 윤명숙. 2013.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174-200.
- 이영선, 이소래, 주성아, 고영빈, 김예진, 한인영. 2012. 응급구조원, 지하철 승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 *사회복지연구*. 43(1): 249-273.
- 전경규,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중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자각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01-212.

정여주. 2011.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클라이언트 폭력이 이차적 외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정원, 이병숙. 2013.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간호행정학회. 19(3): 340-350.

허수연, 이정은, 이종은, 홍혜영, 유호선, 최은희, 엄병수. 2006. 사고노출을 경험한 철도기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PTSD와 사회적 지지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99-120.

현진희.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외상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229-254.

Received: Oct. 31, 2018 / Revised: Nov. 20, 2018 / Accepted: Nov. 26, 2018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전문가의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입조사모델이 활용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와 포커스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상담원들이 경험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의 수준, 이차외상스트레스가 업무와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 기관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의 현황,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프로그램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명을 대상으로 초기 현장실험을 실시한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이 상담원들의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 수준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차 트라우마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주된 대상으로 실천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하였다.

주제어 :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개입조사모델, 프로그램 개발

Profiles **Jinhee Hyun** : She is the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She received her Ph. 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abuse and trauma, disaster mental health, and clinical social work(jhh@daegu.ac.kr).

Hyang A Kim : She received her Ph. D. from Daeg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elderly and mental health(hyanga48@naver.com).